

# ‘학습’이란 불순한 의도로 만든 허접한 ‘합체로봇’

‘건강한 만화 양식으로 정보와 재미 주는 그릇돼야’  
다양한 작가 양성, 아이들의 의견 담긴 학습만화 필요

글 이종수

“온 가족이 읽을 수 있는 이런 교양만화를 기다려 왔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만화’라는 그릇에 세계 과학의 역사를 담아냈기 때문에 흥미와 재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후배의 동생이 오랫동안 만화에 전념하다가 만들어 낸 교양만화-《과학은 흐른다》(청년사)-표지에 나오는 글이다. 만화를 그린다고 하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던 시절을 벗어나서 만화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한 만화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교양만화나 학습만화니 하는 말은 낯설기만 하다. 앞의 글만 보면 아직도 이렇다 할 교양만화나 학습만화가 많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과 학습이란 말로 마치 로봇합체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서점이나 도서관 곳곳에 크게 자리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텔레비전이나 입체영화에서 강렬한 전자파를 쏘고 터질 듯한 눈빛 광선을 보내는 주인공들이 교양과 학습만화의 표지를 독차지하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실제로 교양과 학습이란 이름으로 나오는 만화들 대부분이 그렇다. 강렬한 색과 자극적인 제목과 광고 문구를 달고 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빠져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부모들의 얇은 귀를 의식해서, 재미 삼아 보면서 최대의 학습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만화를 잘못 사귀면 큰일나는 나쁜 친구처럼 여겨서 아예 그곳에는 발도 들어놓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다. 만화란 장르가 상당한 발전을 해왔고 많은 작가들이 작가주의 만화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위

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도 만화란 당장이라도 폐기시켜야 할 것처럼 보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서 만화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양과 학습만화는 인정하며 아이들에게 적극 권장하며 사주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들은 교과서 만화부터 역사, 인물 만화 등 학습만화만큼은 많이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학교도서관에선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많은 학습만화들이 책장이 너털너털해질 정도로 술한 대출과 반납을 거듭하고 있다. 만화는 푸대접을 받으면서 교양과 학습이란 코걸이를 걸면 아무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엄청난 학습효과를 기다리는 모순이야말로 우리가 책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괜찮고, 교양과 학습이란 명목으로, 과학이나 예절이란 이름으로 술한 해적판으로 거듭나는 출판 행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던 말인가.

그래서 되도록 도서관에는 ‘좋은 만화’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좋은 만화는 ‘나쁜 만화’와 대별되는 성격이 아니라, ‘만화’란 양식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말과 글이 담지 못한 표현 양식과 대화 방식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학습만화는 가져다 놓을 만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학습과 만화가 만나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기란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나 책을 빌려가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자기들이 하도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재미있게 읽으라고 만든 것이 학습만화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재미면 재미지 학습, 아니 공부란 것까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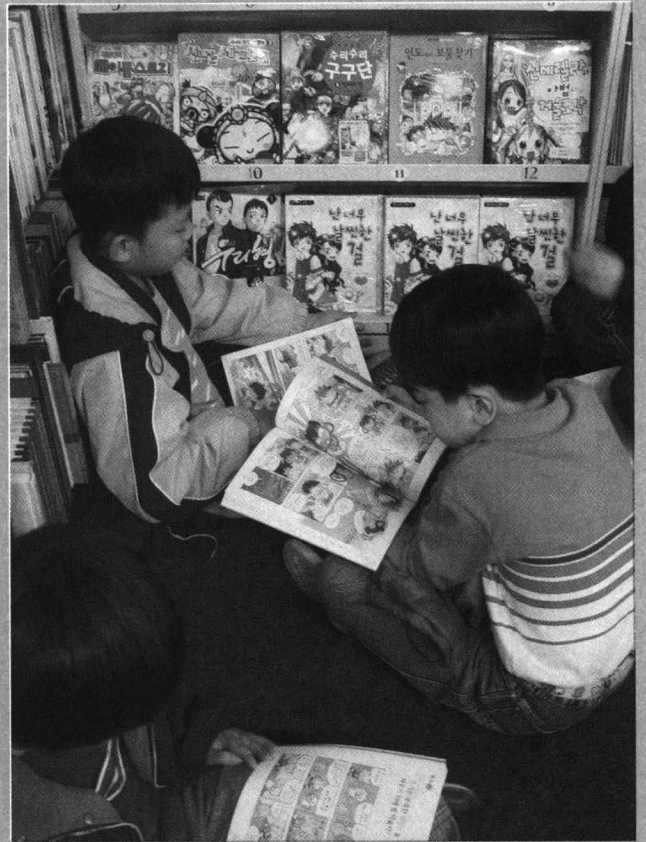
많은 학습만화를 읽어도 부모들이 기대한 만큼 학습효과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끊임없이 다른 만화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 학습만화는 원하지 않아도 사다 주고 읽으라고 한다. 또한 심청전, 웅고집전처럼 역사 만화나 위인 만화에 대해서도 관대하다는 모순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말한 역사나 위인 만화는 알맹이가 빠진 학습 위주의 만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학습만화처럼 재미로 읽고 나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양식에 너무 무리한 이야기 방식이나 그릇된 캐릭터를 집어넣고 너무 빠른 결론을 맺거나 왜곡을 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이런 현상은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매체의 발달과 함께 정보 전달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와 비슷해 보인다.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자막 처리와 함께 우스꽝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 처리로 시작하여 끝을 맺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들을 더 이상 말과 글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영상물로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이들이 글로 시작하고 글로 맺는 책의 방식에서 멀어지게 되고 같은 말이라도 이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아닐까.

학습만화의 원본은 아무래도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까다롭게 받아들이는 법률이나 의학 지식 같은 것을 만화로 풀어서 보여주던 것이 아닐까 싶다. 전문가가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해야만 이해가 되던 것이 만화로 술술 풀어갈 때 해결이 되던 것처럼 공부란 문제도 만화로 풀어보려고 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닐까. 그러나 만화를 빌려 어려운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불성실하고 부족한 전달력으로 만화란 편한 양식을 선택했을 때 이도 저도 아닌 것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만화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다. 그러니 '학습'이란 말은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겪게 되는 인간 본연의 활동이라고 보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만화에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을 넣는 바람에 허접한 만화가 되어버린 사례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만화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리한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다양한 작가들을 만들어내는 환경과 만화란 양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역어가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폭넓은 독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만화는 무조건 안 되고 글만 뽕뽕한 동화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것저것 소화하지 못할 분량까지 집어넣는 주입식 독서풍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좋은 만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들었다. 만화를 아예 없애는 곳도 있지만, 좋은 작가들을 만나게 해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대화하는 방식



만화 천대 풍토 속에서 '학습'이란 코걸이로 독자 현혹  
'뻥한 구성과 무리한 캐릭터, 부정확한 전달'

으로 만화를 활용하는 곳이 더 많다. 아울러 학습만화의 올바른 방향과 주 독자층인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토론하는 작업 또한 함께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보아 왔던 학습만화란 결국 학습이란 불순한 의도와 함께 만화와 학습이 따로 노는 괴물 같은 로봇합체였다. 또한 서둘러 만든 허술한 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이들의 솔직한 의견이다. 만화란 여러 분야와 만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그릇으로 역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화를 건강한 양식 그대로 살려내면서 아이들에게 독서의 폭을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학습만화와 교양만화식으로 나오는 출판물들은 좀더 세밀한 기획과 편집, 작가 선정, 감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좋은 자연그림책들이 전문가의 밀착 원고와 감수 과정을 거쳐서 정보 전달력과 읽히는 재미를 함께 주었던 것처럼, 만화가와 출판기획사 모두에게 독자층을 고려한 신중한 기획과 원고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

● 이 글을 쓴 이종수는 1966년 전남 벌교에서 태어나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시와 동화를 공부하면서 청주에서 참도깨비어린이도서관을 꾸려가고 있다. 시집으로 『자작나무 눈처럼』이 있고 산문집 『오늘이 커서 무엇이 될까』가 있다.